

수렁에 빠진 경제

“사람살리는 일 첫째 공덕”

아사위기 북한동포 돕자

지난해 12월 초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북한 식량은 97년 2월이면 바다나 이후 8백만~1천만명의 북한주민이 아사상태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운동본부 측은 지난 1월 1억5천만원을 적십자사에 전달한 데 이어 5월까지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13개 개신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북한동포후원연합회(식량은행)는 최근 5억원의 자금을 확보, 이달 초 대북지원을 성사시킨다는 목표로 전달경로 등 실무적 문제를 논의 중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륜스님은 북한동포돕기를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나서자고 호소한다.



◇북한의 한 아주머니가 굶으면서도 먹지 않고 더 많은 수확을 위해 옥수수 씨앗을 파종하고 있다. 이 사진은 96년 5월 평안북도 한 지역에서 WFP(세계 식량계획) 관계자가 촬영한 것이다. <사진제공=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극심한 식량난 흠뻑기까지 종교계 등 구호 손길 활발

이런 가운데 종교단체들은 중심으로 한 인간의 대북지원 움직임은 활발하다. 불교 천주교 등 6개 종단과 시민단체 학계를 망라하고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강원도 평창군의 남이도는 감자 2천톤을 전달수매해 북한에 보내기로 했으며, 옥수수 1만톤(17억원 상당)을 4월 초 북한에 보낼 계획을 추진 중이다.

리타스를 통해 대북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최근 1천2백2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3월 28일 창립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도 식량과 출산의료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북한동포 돕기가 전국민적 운동으로 퍼져가고 있다.

군량미 전용설 등의 논리가 민간단체의 지원을 더하게 하지만 이들 단체의 대북지원 이유는 간단하다. 남북간의 오랜 갈등관계를 화해와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고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성운 기자

불교의 눈

로 우리가 불같이 일어나면 금방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이르셨다. “여러분은 공덕과 특같은 네가지 공덕이 있는데, 하나는 굶주려 죽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즉 배고픈 사람에게 먹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병들어 죽는 사람을 약을 줘서 살리는 것이고, 세번째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을 돕는 거고, 네번째가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히 수행하는 자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열반경>

지계

금주

파계

여야 정쟁중지 민생주력

●...여야는 지난 3월 25일 한보사건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야기, 경제 사회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민생안정을 위해 정쟁중지를 선언했다. 여야는 특히 한보사건과 김현철씨 국정개입 의혹은 검찰수사와 한보조사특위에 맡기고 경제살리기 등 민생문제에 주력키로 해 사국수습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립대간 시설 공동활용

●...경인지역 11개 사립대학들은 지난해 2학기부터 학교간 학점교류를 시작하는데 이어 이번 학기부터는 각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실험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도서관 및 도서관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참여 대학은 강남대 경기대 경원대 경희대 명지대 아주대 용인대 인천대 인하대 항공대 한신대 등이다.

효박물관 건립 후원 ‘밀물’

●...삼성정자는 지난 3월 17일 ‘효박물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황영조 효마라톤

전국일주 행사 추진위원회 후원금 3억원을 전달했다.

한국마라톤의 영웅 황영조는 지난 23일부터 6일까지 효박물관이 세워질 경기도 포천에 이르기까지 15일 동안 매일 40km씩 마라톤레이스를 펼친다. 대우그룹은 25일 육군사관학교에 학술연구 지원과 생도들의 해외연수비 등의 용도로 10억원을 출연했다.

외제누른 국산 티셔츠

●...중소기업청 산하 국립기술개발원이 티셔츠 가족운동화 낚시대 등 3개 스포츠 용품을 대상으로 국산제품과 수입제품, 상표도입제품의 품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산 제품이 품질도 좋고 값도 싼 것으로 조사됐다. 티셔츠는 국제상사의 ‘프로메이트’ 티셔츠가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표도입제품인 (주)서광의 ‘라코스테’, 수입제품인 ‘블랙엔 화이트’ 순이다. 운동화는 화성의 ‘트카프’가 종합평가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했으며, 수입제품인 ‘나이키’와 상표도입제품인 ‘아디다스’ 등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서민자금 은행직원 잔치

●...은행들이 무주택 서민 등 일반고객에게 대출해야 할 주택자금의 70%를 자사 임직원들에게 저리 융자로 대출, 사실상 은행내부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은행감독원에 시정을 요구했다. △동남은행 1백%(1백10억원) △하나은행 1백%(4백71억원) △대동은행 99%(1백22억원) △동화은행 99%(1백43억원) △조흥은행 98%(1천89억원) △서울은행 98%(9백98억원) 등이었다.

유해 불고기판 대량유통

●...고기를 구울 때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고기에 스며드는 불량불고기판과 냄비를 생산, 시중에 대량유통해온 무허가 식품조리기구 업체 및 판매상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4월부터 활동성분이 함유된 차량 라디에이터 등 공업용 폐철을 고철상에서 구입, 불량 불판 등 조리기구 11만여개(10억7천만원 상당)를 생산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불판 불판의

용출시험을 의뢰한 결과 납성분이 허용기준치인 1ppm을 초과해 2.04~3.85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버스 파업에 시민 ‘발동동’

●...서울과 인천 대전시 시내버스가 26일 오전 8시부터 노사간의 임금협상 결렬로 전면 또는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서울의 경우 89개 업체 8천7백25대의 버스 가운데 6개 업체 2백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버스가 오후 4시30분까지 운행을 중단했다. 한편 서울시내버스 요금은 빠르면 5월부터 도시형버스만 현행 4백원에서 4백30원으로 7.5% 인상할 전망이다.

교통참사 부른 안전불감증

●...무궁화호 열차와 시내버스가 충돌, 16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지난 24일 전북남원 수촌마을앞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버스가 일단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버스 운전자를 일건 조사중이다. 그러나 차단기와 안내원도 없던 교차로와 정지신호만으로도 교통통제를 하는 허술한 안전시설도 사고 원인이다.

시론

수렁에 빠진 경제

누구나 입만 열면 경제가 큰일났다는 말뿐이다. 정부 일각의 낙관론자들까지도 더이상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연구기관마다 비관적인 전망 일색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5%대로 낮아지고 실업률은 2.5%까지 올라가다가 하면 경상수지 적자도 2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확산되는 부도공포증

현황은 지표보다 더욱 어둡고 비관적이다. 중소기업은 하루 하루가 생사의 갈림길이며 부도 공포증이 대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4월 금융대란설’이 외환위기설과 함께 한낱의 유행처럼 모든 기업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 창구가 얼어붙자 실세금리는 치솟고 대외수지적자의 확대도 원화값이 급속히 떨어지자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보다 못해 대통령이 직접 경제살리기의 최선봉에 나섰다지만 때론은 감이 없지않다. 경쟁력 회복이나 기술개발이나 하는 것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을 뿐 많은 기업들이 경영 의욕을 상실한 채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위기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 모두의 피부에 깊숙이 와 닿을 정도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한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나가던 우리 경제가 왜 이처럼 갑자기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을까? 피상적인 원인이야 두말할 것 없이 한보와 삼미의 부도 후유증 때문이. 여기에 정치권의 대선 게임도 경제 불안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도 유독 한국만 불황이라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피상적인 요인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경제가 과거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만큼 현 경제 위기의 성격은 복합적이고 그 해결 또한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일생을 보면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갈 때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된다. 크게 보아 육체적으로는 활력이 저하되고 정신적으로는 사려 깊고 원숙해지기 마련이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인생 관리에 실패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경제도 일정한 생체 리듬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한 시점이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고비이다. 이 고비는 흔히 마(魔)의 고개라고 불린다. 미국이 1만 달러의 고비를 넘은 1972년이 모두 그러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사람의 장년기에서 보통 성장 둔화와 원숙이다.

우리의 경제 위기는 바로 이 두 가지 변화에 대한 적응의 실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경제 위기는 단기간 내에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만성화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경제 위기 타개 노력도 당연히 과거와는 다른 식이 되어야 한다. 지난 시대의 고지점형 고도성장 전략보다는 ‘원숙한 경제’, ‘분수에 맞는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즉 불가와 국제수지의 안정, 정성과 물질의 조화, 부의 축적과 도덕성,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균형을 잡는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부의 깊이(Profound of Richness)를 가진 나라’여야 한다.

우리가 현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진정한 의미의 잘사는 나라를 만들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경제주체들이 욕구를 자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더이상 공금을 늘려 욕구를 채워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이상 절제를 미덕으로 하는 국민적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절제의 미덕 되살리자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무소유 사상과 절대단조(絕對單調, Absolute Simplicity)정신의 확산은 우리의 터득이 없는 욕구를 낮추고 무절제한 소비 행태를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살 할 불을 버리면 그 쌓이 쌓을 때까지 재석천(常釋天)이 거기에 내려와 영영 운다는 전통적인 불가의 절약 사상은 사물에만 몰려 돌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고질적인 남비병을 치유하는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이 경제 불황을 벗어나는 데는 우리 불교의 절대단조와 통하는 청교도적 극소주의(極少主義, Minimalism)의 부활이 큰 힘이 되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할 일이다.



김수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몸이 오는 소리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 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천축산가 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내음-부처님도량 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꿈시다 (SOD. 청혈작용 때문에)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치내노폐물 제거 때문에)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정, 화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때문에) * 장덕력, 집중력, 공포마리가 강력 감진다. (조금의 차이도 1타를 이긴다.) 꾸준히 사용에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부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전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藥인을 찍어서서 사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뜨랭방 떡화점 지하상가 입구) 777-0105 (수원판매)

생명공학과 부적. 생명공학의 지혜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박지명 역음/신국판/값 18,000원. “성공을 위한 소리에너지(주문)의 명상에너지(부적)의 신비한 효험!” 인간의 몸에는 수많은 에너지의 선과 흐름이 있으며 그것은 정신의 진화과정 상태로 연결된다. 이 책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왔던 삶의 나쁜 에너지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소리와 형상 에너지에 접근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획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문담 역음/신국판/값 12,000원. 전국 대형서점 절찬리 판매중!! 개침의소리 전화: (02)444-3575